

KIS 모델포트폴리오

2011. 12. 5

목차

- I. 11월 리뷰와 포트폴리오 수익률..... 1
- II. 12월 모델포트폴리오..... 3
- III. 12월 모델포트폴리오 전략..... 5
- IV. 수급 및 밸류에이션..... 11

삼성전자 신고가의 의미

12월 전략: 대형주, IT 업종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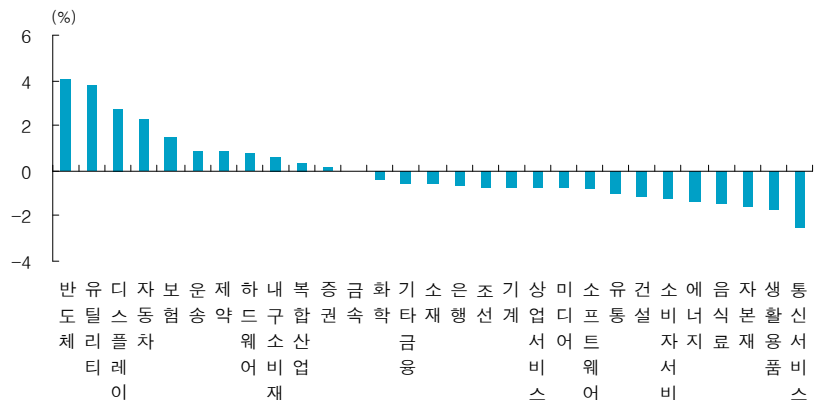
12월 거래량 감소에 따라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11월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 대형주가 약세가 나타났던 만큼 12월에는 프로그램 매수 전환과 함께 대형주 강세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IT업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대부분의 업종이 2012년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등 IT의 생산성 개선, 미국의 견조한 소비에 대한 기대 등이 기관투자자의 IT 업종 매수세로 반영되고 있다. 2012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삼성전자 등 IT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2년은 IT섹터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11월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은 -4.27%로 KOSPI 대비 1.05%p 하회

11월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은 -4.27%로 KOSPI 대비 1.05%p, KOSPI200 대비 0.80%p 하회했다. 11월 MP의 경우 은행, 조선업종의 높은 비중으로 인해 시장대비 수익률이 낮았다.

12월 MP의 액티브 리스크 (벤치마크 대비 MP 비중)



I. 11월 리뷰와 포트폴리오 수익률

1) 11월 KOSPI 리뷰

11월 유동성 위축으로
증권, 조선, 은행업종 하락

11월에는 디스플레이, 내구소비재, 상업서비스, 음식료, 반도체의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반면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증권, 조선, 은행업종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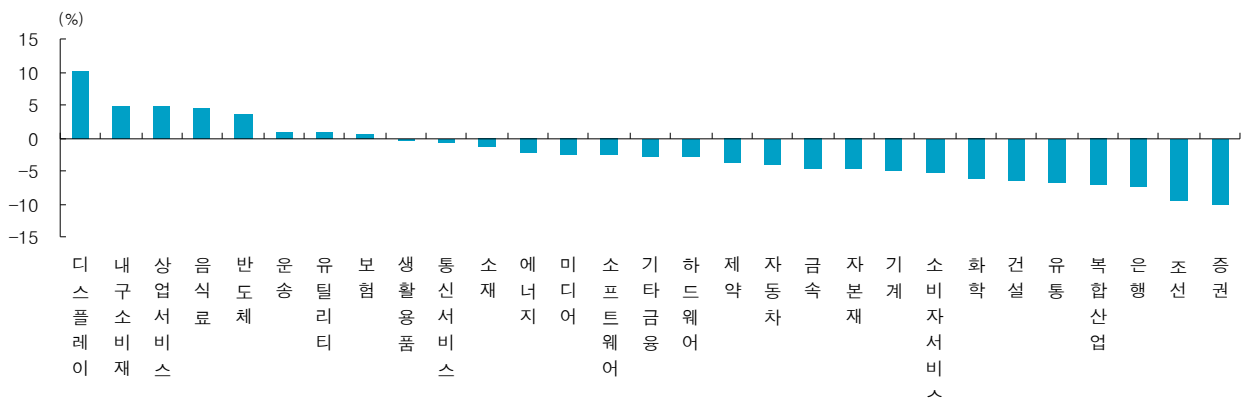
〈표 1〉 KOSPI 11월 말 기준 업종별 등락률

(단위: %)

섹터코드	섹터	산업그룹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6개월 등락률	지수구성비중
10	에너지	에너지	-2.4	-2.8	-17.8	4.3
15	소재	화학	-6.2	-14.4	-32.3	6.4
15	소재	금속 및 광물	-4.6	-11.3	-13.7	6.0
15	소재	소재	-1.5	-3.8	-11.1	0.6
20	산업재	건설	-6.6	-12.3	-15.9	4.2
20	산업재	조선	-9.5	-17.6	-42.1	3.7
20	산업재	복합 산업	-7.1	-7.8	-23.0	2.7
20	산업재	운송	0.8	-8.5	-1.0	2.1
20	산업재	자본재	-4.8	-14.7	-22.6	1.6
20	산업재	상업서비스	4.6	21.8	2.6	0.7
20	산업재	기계	-5.0	-6.1	-3.7	0.7
25	경기소비재	자동차 및 부품	-4.0	0.4	-12.2	12.8
25	경기소비재	유통	-6.7	-13.8	-15.0	3.0
25	경기소비재	내구소비재 및 의류	4.8	5.0	14.8	1.4
25	경기소비재	소비자 서비스	-5.3	-2.8	4.4	1.2
25	경기소비재	미디어	-2.5	6.1	12.2	0.7
30	필수소비재	음식료 및 담배	4.4	1.4	11.4	3.5
30	필수소비재	생활용품	-0.4	6.4	9.7	1.7
35	의료	제약 및 바이오	-3.8	-5.9	13.4	1.1
40	금융	은행	-7.3	-8.0	-17.6	6.6
40	금융	보험	0.4	0.8	2.0	4.5
40	금융	증권	-10.3	-19.4	-26.1	1.8
40	금융	기타금융	-2.9	-18.9	-20.6	0.6
45	IT	반도체	3.5	32.8	8.0	16.0
45	IT	하드웨어	-3.0	9.8	-19.2	3.2
45	IT	소프트웨어	-2.7	4.8	18.8	2.8
45	IT	디스플레이	10.2	15.8	-23.5	1.3
50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0.6	2.6	-2.4	2.5
55	유틸리티	유틸리티	0.7	8.1	-11.4	2.2
		KOSPI	-3.2	-13.8	-4.7	100.0

주: KOSPI+한국투자증권 유니버스 코스닥 40개 기업, 섹터분류는 GICS 산업그룹, 산업 분류를 참조함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그림 1] KOSPI 산업그룹별 등락률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2) 포트폴리오 수익률

11월 KOSPI 대비 -1.05%

- 11월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은 -4.27%로 KOSPI 수익률 대비 1.05%p 하회
-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84%로 KOSPI 수익률 대비 0.92%p 하회
- 설정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493.59%로 KOSPI 수익률 대비 177.45%p 상회

[그림 2] 한국투자증권 모델포트폴리오 누적수익률(2003.4.30=100)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3] 한국투자증권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 추이(2010.12.30=100)



자료: 한국투자증권

II. 12월 모델포트폴리오

1) 12월 MP

삼성전자 비중 확대

12월에는 차기 연도 주도주로 기대되는 업종이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미국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강세가 기대된다.

〈표 2〉 12월 모델포트폴리오

(단위: %)

코드	종목	산업그룹	벤치마크비중(섹터)	제안비중(섹터)	벤치마크 대비	전월 대비	제안비중(종목)
A096770	SK이노베이션	에너지	4.3	3.0	-1.3	-3.0	3.0
A011780	금호석유	화학	6.4	6.0	-0.4	0.0	3.0
A010060	OCI	화학					3.0
A005490	POSCO	금속 및 광물	6.0	6.0	0.0	1.0	6.0
A000720	현대건설	건설	4.2	3.0	-1.2	-1.0	3.0
A042660	대우조선해양	조선	3.7	3.0	-0.7	-2.0	3.0
A003550	LG	복합 산업	2.7	3.0	0.3	1.0	3.0
A003490	대한항공	운송	2.1	3.0	0.9	1.0	3.0
A005380	현대차	자동차 및 부품	12.8	15.0	2.2	3.0	9.0
A060980	만도	자동차 및 부품					3.0
A000240	한국타이어	자동차 및 부품					3.0
A035760	CJ오쇼핑	유통	3.0	2.0	-1.0	0.5	2.0
A009970	영원무역홀딩스	내구소비재 및 의류	1.4	2.0	0.6	0.5	2.0
A004370	농심	음식료 및 담배	3.5	2.0	-1.5	0.0	2.0
A000100	유한양행	제약 및 바이오	1.1	2.0	0.9	1.0	2.0
A086790	하나금융지주	은행	6.6	6.0	-0.6	-4.0	6.0
A001450	현대해상	보험	4.5	6.0	1.5	2.0	3.0
A003690	코리안리	보험					3.0
A016360	삼성증권	증권	1.8	2.0	0.2	0.0	2.0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16.0	20.0	4.0	1.0	20.0
A006400	삼성SDI	하드웨어	3.2	4.0	0.8	-2.0	4.0
A034220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1.3	4.0	2.7	3.0	4.0
A023590	다우기술	소프트웨어	2.8	2.0	-0.8	0.0	2.0
A015760	한국전력	유틸리티	2.2	6.0	3.8	3.0	6.0

주: 1. 모델포트폴리오 종목은 시장벤치마크지수를 초과할 목적으로 구성된 종목 pool로 업종담당 애널리스트의 매수추천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2. 벤치마크는 KOSPI+한국투자증권 유니버스 코스닥 40개 기업, 섹터분류는 GICS 산업그룹, 산업 분류를 참조함

자료: 한국투자증권

2) 12월 MP 투자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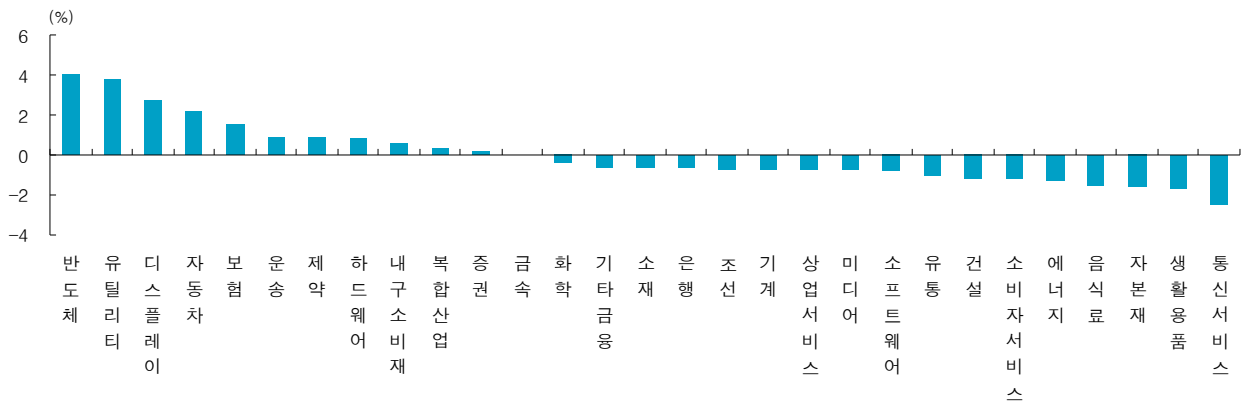
〈표 3〉 12월 모델 포트폴리오 투자지표

(단위: %, x)

코드	종목	산업그룹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ROE		PER		PBR	
			2011F	2012F	2011F	2012F	2011F	2012F	2011F	2012F	2011F	2012F
A096770	SK이노베이션	에너지	52.3	-8.2	155.2	-39.4	24.0	12.9	5.3	8.7	1.26	1.11
A011780	금호석유	화학										
A010060	OCI	화학	74.2	-8.1	74.3	-7.9	35.1	24.9	5.1	5.6	1.79	1.39
A005490	POSCO	금속 및 광물	-12.6	26.0	-16.2	36.2	9.3	11.5	8.5	6.3	0.85	0.77
A000720	현대건설	건설	2.6	21.1	22.7	11.7	15.7	15.2	12.6	11.2	1.97	1.71
A042660	대우조선해양	조선	15.1	-27.8	-2.9	-43.7	16.1	8.5	7.0	12.4	1.14	1.06
A003550	LG	복합 산업										
A003490	대한항공	운송	-43.1	54.3	-39.4	152.9	7.4	16.0	12.3	4.9	0.96	0.82
A005380	현대차	자동차 및 부품	32.0	10.5	43.5	10.0	22.3	19.9	8.5	7.8	1.91	1.55
A060980	만도	자동차 및 부품	73.0	35.0	30.3	32.7	17.1	18.7	14.1	10.7	2.42	1.99
A000240	한국타이어	자동차 및 부품	-0.5	30.2	15.9	21.6	17.9	18.2	13.8	11.3	2.49	2.07
A035760	CJ오쇼핑	유통	19.1	13.6	22.3	25.4	17.3	18.0	15.8	12.9	2.80	2.36
A009970	영원무역홀딩스	내구소비재 및 의류	12.1	10.3	12.4	12.0	21.3	19.5	5.4	4.9	1.36	1.12
A004370	농심	음식료 및 담배	-5.5	45.0	-7.5	48.0	8.2	11.0	11.0	7.4	0.91	0.82
A000100	유한양행	제약 및 바이오	-15.7	18.4	-7.1	14.8	10.1	10.5	11.3	9.6	1.13	1.03
A086790	하나금융지주	은행	46.8	-3.2	36.3	0.4	9.7	9.0	7.1	7.0	0.69	0.63
A001450	현대해상	보험	136.1	-4.7	156.4	-3.5	23.8	19.2	7.1	7.4	1.67	1.40
A003690	코리안리	보험	78.6	11.2	81.2	13.1	15.4	15.1	8.6	7.6	1.22	1.08
A016360	삼성증권	증권	17.1	13.3	39.4	14.7	10.9	11.5	11.8	10.3	1.24	1.14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14.7	27.3	-15.8	24.7	13.6	14.6	10.9	8.8	1.56	1.36
A006400	삼성SDI	하드웨어	20.9	22.7	22.5	27.4	6.6	7.8	14.0	11.0	0.94	0.88
A034220	LG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적자전환	흑자전환	적자전환	흑자전환	-8.7	2.8	-9.3	28.6	0.81	0.80
A023590	다우기술	소프트웨어	12.0	13.7	-1.7	13.0	12.1	12.1	6.2	5.5	0.77	0.69
A015760	한국전력	유틸리티	적자전환	적자지속	적자지속	적자지속	-2.5	-3.2	-11.2	-9.2	0.29	0.30

주: 11월 30일 추가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4〉 12월 MP의 액티브 리스크 (벤치마크 대비 MP 비중)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III. 12월 모델포트폴리오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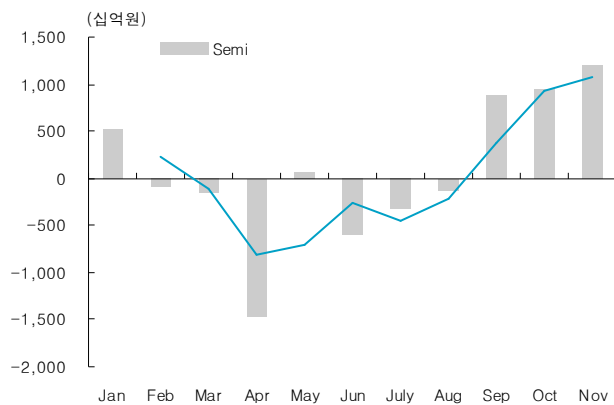
1) 국내 기관 투자자의 IT 매수 집중

기관투자자

9월 이후 IT 집중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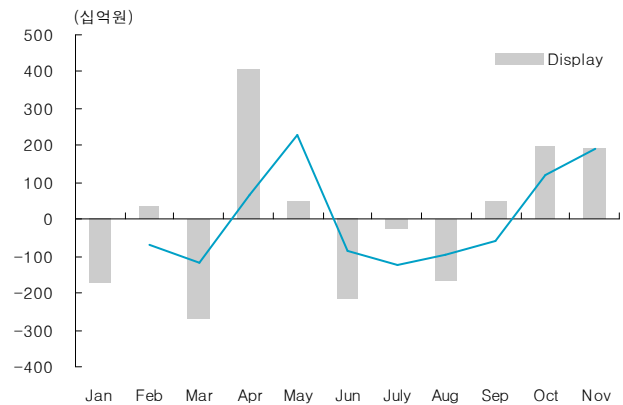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9월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IT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특히 반도체 업종으로 많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11월에만 120조원의 자금이 반도체 업종 매수에 몰렸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디스플레이/가전 등의 다른 IT 섹터로도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5] 2011년 월별 기관 순매수 - 반도체



주: 대형주 (KOSPI50) 대상으로 기관 매수 집계
자료: DataGuide Pro,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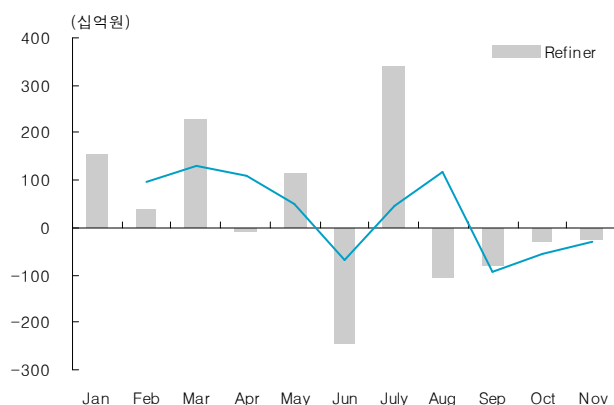
[그림 6] 2011년 월별 기관 순매수 - 디스플레이



주: 대형주 (KOSPI50) 대상으로 기관 매수 집계
자료: DataGuide Pro,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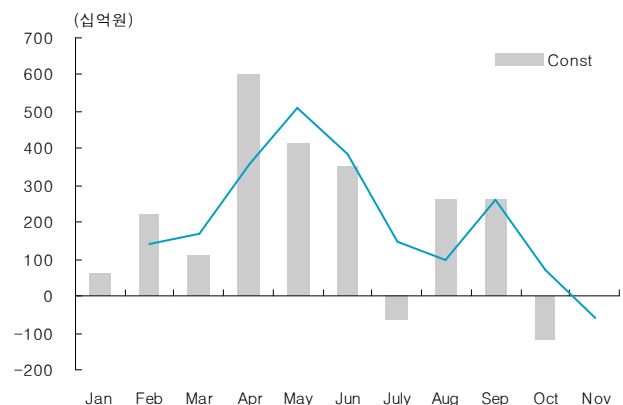
반면 상반기 동안 기관의 매수가 몰렸던 화학, 정유 그리고 건설 업종에서는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8월부터 시작된 시장 하락 시기를 기점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그림 7] 2011년 월별 기관 순매수 - 정유



주: 대형주 (KOSPI50) 대상으로 기관 매수 집계
자료: DataGuide Pro, 한국투자증권

[그림 8] 2011년 월별 기관 순매수 - 건설



주: 대형주 (KOSPI50) 대상으로 기관 매수 집계
자료: DataGuide Pro, 한국투자증권

문제는 IT 섹터에 기관 투자자의 자금이 지나치게 쏠리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12년 연간전망에 밝혔던 것처럼, 지금은 IT 섹터의 리레이팅이 가능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휴대폰 부문에서 강력한 HW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재평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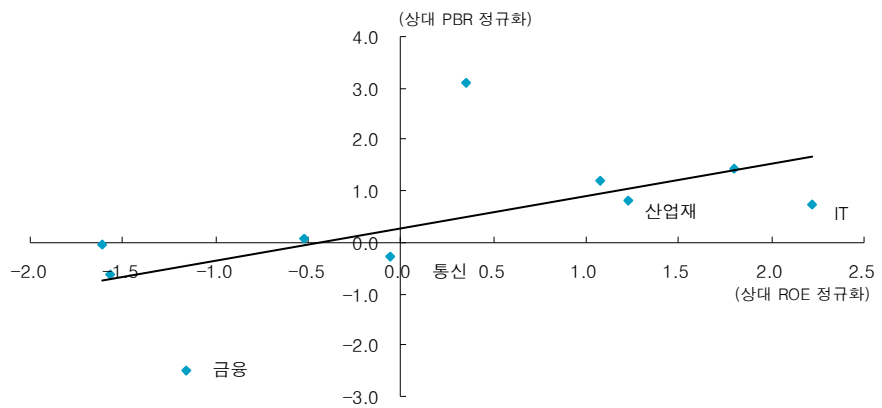
2) 생산성 개선과 IT 섹터

글로벌 IT섹터 저평가

먼저 글로벌 IT섹터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매우 높다. 현재 글로벌 IT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전체 시장 대비 상대 PBR(Trailing 기준)은 170%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 + 1 표준편차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 ROE를 함께 고려해서 보면 IT 섹터의 저평가 매력이 가장 두드러진다.

IT 섹터의 상대PBR 및 상대ROE를 정규화 시킨 값이 각각 0.74, 2.22이다. 즉 PBR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반면 ROE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IT 섹터의 상대ROE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IT섹터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역사적으로나 섹터간 비교적 관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글로벌 섹터 상대 ROE-PBR 비교 - IT 섹터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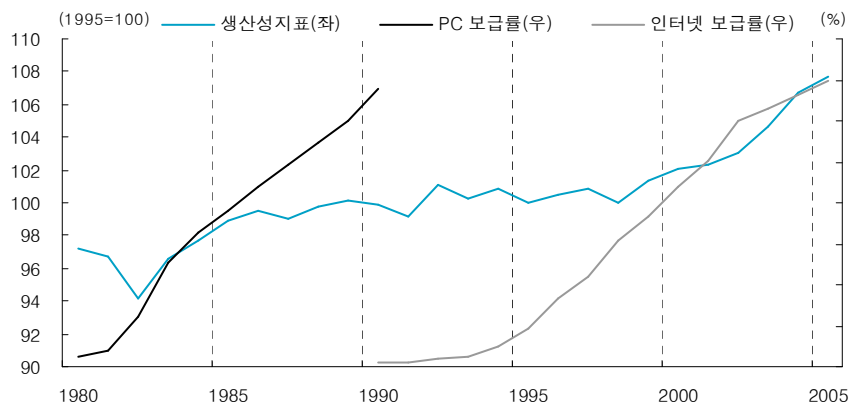
주: 1980년 이후 섹터별 상대 PBR 및 ROE를 정규화 시켜 비교한 것임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투자증권

IT 리레이팅 조건,

- 1) 신기술의 대중화
- 2) 생산성 개선

그런데 역사적으로 IT섹터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던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후반은 새로운 기술의 대중화와 생산성 개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1980년대에는 PC의 대중화, 1990년대에는 인터넷의 대중화와 기업의 IT 투자붐으로 사회의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다.

[그림 10] 생산성과 신기술 및 서비스 도입의 관계 - PC 및 인터넷 대중화 시기에 생산성 향상



주: 생산성 지표는 노동/자본 투입 증가량 이외의 성장 요인인 기술의 발전, 규모의 경제, 제도의 개선 등을 의미하는 지표임
 자료: KLEMS Project,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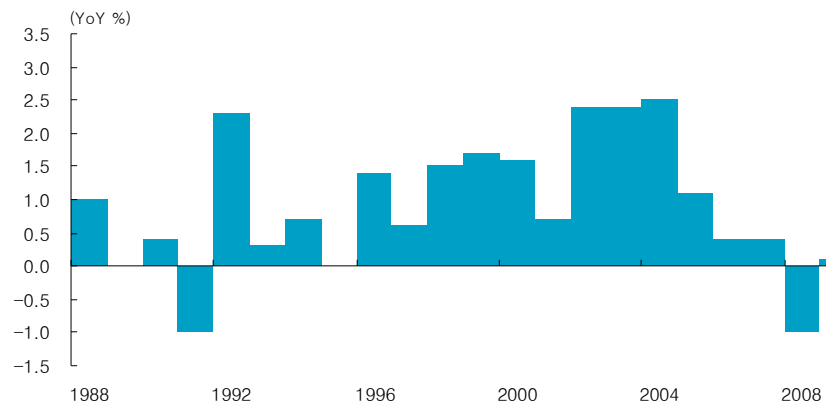
모바일 컴퓨팅 대중화로 생산성 개선 나타나

현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도 모바일 컴퓨팅 환경의 대중화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이다. 일반적으로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화 소비기기의 보급률은 S자 커브를 그리는데 보통 10%를 넘어서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이른바 대중화 구간이 나타난다.

한국을 예를 들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10%를 넘어선 것이 2010년 하반기 인데 현재 보급률은 40%에 육박한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 스마트폰 보급률이 이제 막 10%에 도달한 상황이므로 향후 이머징 국가의 모바일 컴퓨팅 대중화 시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BLS에서 발표하는 생산성 지표(Total Factor Productivity 기준)는 2010년에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1988년 이후 BLS가 생산성 데이터를 발표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과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사례를 참고해볼 때 IT섹터의 리레이팅이 도래할 수 있는 공통점인 것이다.

[그림 11] 미국 생산성 증가율 - 2010년 증가율은 1988년 이후 최대치



자료: BLS,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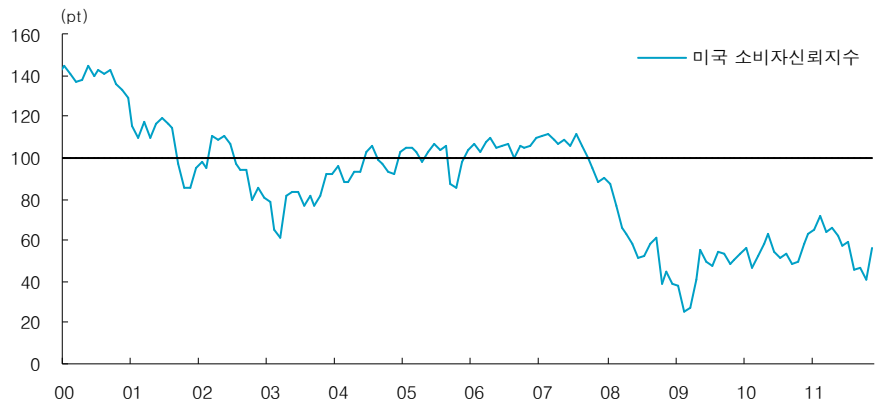
3)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 관련 Q&A

Q 김철중) 미국 소비 경기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 쇼퍼트랙은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07년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소매협회(NRF)는 추수감사절 주말 소매매출 16% YoY 증가한 5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인당 지출액도 365.34달러에서 398.62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11월 소비심리는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저점 부근이다. 미국 소비자의 소비는 사실상 가격 인하에 힘입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격인하로 완제품업체는 매출을 늘릴 수는 있어도 영업이익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완제품 판매량 증가로 인해 패널 등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부품업체의 수익성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림 12]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 기준점 100을 하회함

11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소폭 반등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 유종우) TV가격 하락폭의 확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 패널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TV가격 하락이 패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패널가격이 지난 2010년 4월 이후 30~40% 하락해 패널업체들의 수익성이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이다. 과거 사이클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TV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는 시점에 패널업체들의 수익성은 이미 저점을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TV가격 하락이 패널가격과 패널업체들의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TV가격 하락이 수요증가로 이어져 패널수급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TV가격 하락폭 확대는 패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격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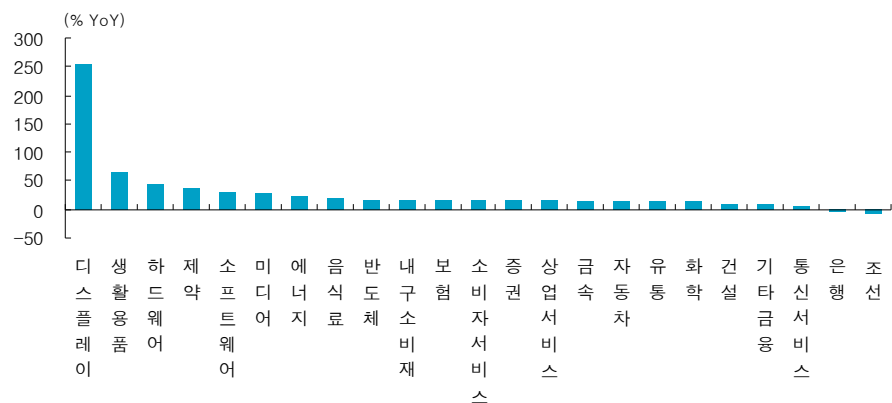
2011년 LCD TV 수요가 급격히 둔화된 이유는 선진국의 경기부진 외에 LCD TV가격 하락이 둔화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LCD TV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매 분기 TV가격은 평균 15% 하락했다. 분기 가격 하락률이 15%보다 낮은 경우를 '가격하락 둔화'로 정의할 때, 2010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LCD TV가격 하락률은 평균 9%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LCD TV 수요가 약세였음에도 가격 하락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로 가격상승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LED TV, 3D TV, 스마트 TV 등의 판매비중 확대로 전체 LCD TV의 평균판매 가격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

4) 2012년 실적 개선 : 디스플레이 턴어라운드 기대감

Q 김철중) 2012년 업종별 순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면 IT업종이 두드러진다. 특히 LG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업종은 2012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다. 실적 뿐 아니라 OLED TV 등이 본격화되면서 장비투자가 늘어나고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렇지만 사실상 3D TV가 수요를 자극하지 못했던 것처럼 OLED TV가 매력적인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디레버리지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OLED TV가 보급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림 13] 2012년 업종별 순이익 성장률 IT업종은 2012년 순이익 성장률이 두드러져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업종
실적 개선될 전망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A 유종우) 디스플레이 순이익 성장률이 높기는 하지만 LG디스플레이가 적자에서 흑자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 순이익 증가율이 가파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OLED TV가 TV수요를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있다. 다만, 패널산업에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LCD패널업체들이 OLED패널 생산으로 전환하면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OLED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는 주식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OLED TV의 가격 premium은 초기부터 그다지 높지 않을 전망이다. OLED TV가 LCD TV 대비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의 증가가 크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격 premium을 높게 책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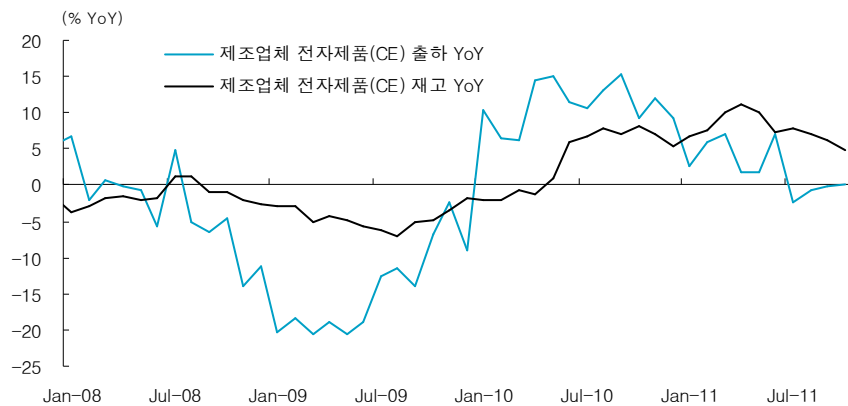
5) 모바일 시대

Q 김철중) 2011년 IT의 화두는 모바일기기의 “카니발리제이션”이었다. 태블릿 기기가 노트북, 넷북, 데스크탑 수요를 잠식하고, 스마트폰이 디지털카메라, MP3, PMP, 네비게이션, 전자사전, GPS 수요를 잠식했다.

특히 전자제품 출하증가율이 0%로 수렴한 2011년 하반기에는 모바일기기 수요가 늘고 여타 IT기기 수요가 감소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그림 14] 미국 제조업체 전자제품 출하 증가율은 0%

미국 전자제품 수요
증가폭이 작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 유종우) TV수요 둔화를 소비자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선호로 인한 소비 우선순위 하락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바일 기기와 TV수요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던 것은 2010년 2분기 이후가 처음이다. 즉, TV시장의 포화, 가격하락 둔화 등으로 인한 수요 둔화이지 모바일 기기를 사기 위한 수요 둔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모바일 기기와 TV수요 간 양의 상관관계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바일 기기나 TV 수요가 서로 대체재의 성격보다는 경기 상황과 소비자들의 소득에 따라 수요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모바일 등 IT의 생산성 개선, 미국의 견조한 소비에 대한 기대 등이 기관투자자의 IT업종 매수세로 반영되고 있다. 2012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삼성전자 등 IT업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2년은 IT섹터의 리레이팅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IV. 수급 및 밸류에이션

1) 11월 외국인, 기관 순매수 동향

〈표 4〉 외국인, 기관 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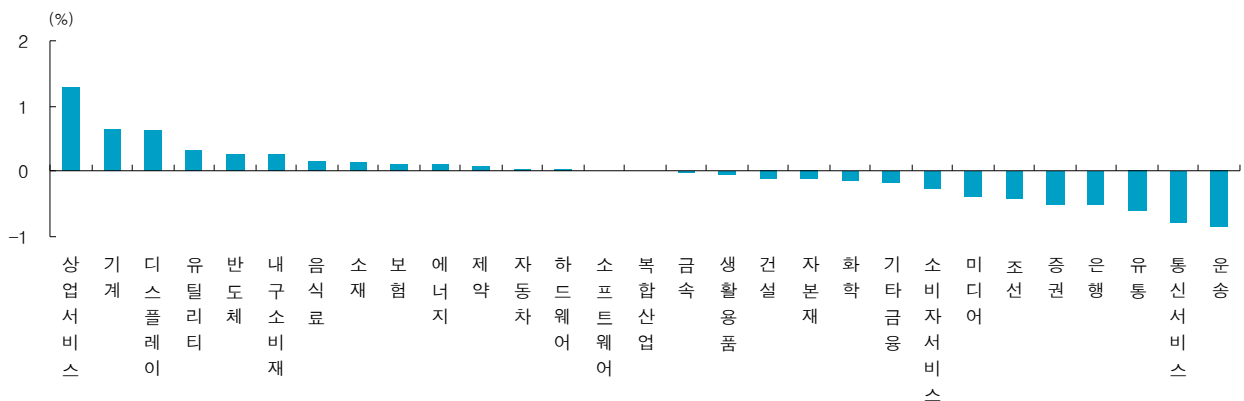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기관의 IT업종 매수세가 두드러져

섹터코드	섹터	산업그룹	1개월 등락률	외국인 20일 매수	기관 20일 매수	시가총액대비
10	에너지	에너지	-2.4	-275.3	319.0	0.1
15	소재	화학	-6.2	-306.8	220.9	-0.1
15	소재	금속 및 광물	-4.6	-287.7	267.1	-0.0
15	소재	소재	-1.5	-3.7	11.9	0.1
20	산업재	건설	-6.6	-70.6	27.8	-0.1
20	산업재	조선	-9.5	-195.7	33.4	-0.4
20	산업재	복합 산업	-7.1	-2.3	3.5	0.0
20	산업재	운송	0.8	-104.1	-80.8	-0.8
20	산업재	자본재	-4.8	-45.5	24.6	-0.1
20	산업재	상업서비스	4.6	124.4	-26.7	1.3
20	산업재	기계	-5.0	-53.5	102.6	0.7
25	경기소비재	자동차 및 부품	-4.0	-290.6	356.6	0.0
25	경기소비재	유통	-6.7	-170.4	-14.7	-0.6
25	경기소비재	내구소비재 및 의류	4.8	-5.2	39.9	0.2
25	경기소비재	소비자 서비스	-5.3	-51.2	17.6	-0.3
25	경기소비재	미디어	-2.5	14.2	-43.2	-0.4
30	필수소비재	음식료 및 담배	4.4	312.9	-256.0	0.2
30	필수소비재	생활용품	-0.4	8.5	-19.3	-0.1
35	의료	제약 및 바이오	-3.8	19.2	-11.2	0.1
40	금융	은행	-7.3	-287.0	-63.2	-0.5
40	금융	보험	0.4	141.6	-96.1	0.1
40	금융	증권	-10.3	30.6	-126.2	-0.5
40	금융	기타금융	-2.9	13.4	-24.1	-0.2
45	IT	반도체	3.5	-407.1	817.4	0.2
45	IT	하드웨어	-3.0	-320.7	333.6	0.0
45	IT	소프트웨어	-2.7	2.3	4.0	0.0
45	IT	디스플레이	10.2	-156.4	241.6	0.6
50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0.6	-191.4	-10.1	-0.8
55	유틸리티	유틸리티	0.7	-44.2	114.0	0.3
				-2,602.3	2,163.8	-0.0

주: KOSPI+한국투자증권 유니버스 코스닥 40개 기업, 섹터분류는 GICS 산업그룹, 산업 분류를 참조함, 9월 29일 기준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KOSPI 산업그룹별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기관 순매수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2) 11월 컨센서스 변화(전월대비, 2012년 기준)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는
하향되고 있음

KOSPI의 12개월 예상PE는 12월 1일 기준으로 9.1배로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다만 자동차업종의 실적 컨센서스 추정치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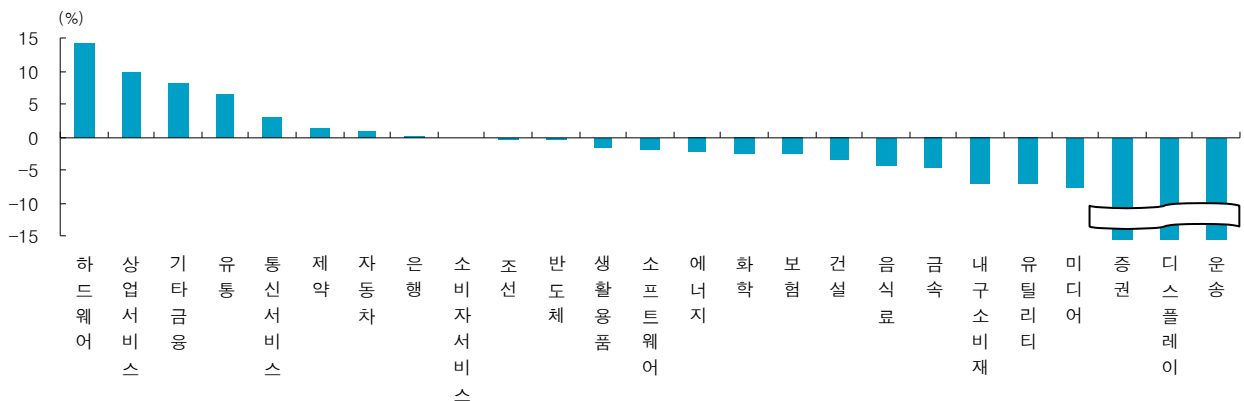
〈표 5〉 산업그룹별 컨센서스 변화

(단위: %)

섹터코드	섹터	산업그룹	등락률	매출액 %	영업이익 %	EPS %
10	에너지	에너지	-2.4	0.5	-2.7	-2.4
15	소재	화학	-6.2	-0.6	-0.6	-2.5
15	소재	금속 및 광물	-4.6	-2.0	-5.0	-4.8
15	소재	소재	-1.5			
20	산업재	건설	-6.6	1.4	0.3	-3.6
20	산업재	조선	-9.5	0.3	-2.2	-0.5
20	산업재	복합 산업	-7.1			
20	산업재	운송	0.8	-0.4	-16.5	-31.2
20	산업재	자본재	-4.8			
20	산업재	상업서비스	4.6	-1.4	0.8	9.7
20	산업재	기계	-5.0			
25	경기소비재	자동차 및 부품	-4.0	4.2	4.1	0.9
25	경기소비재	유통	-6.7	-0.9	-2.9	6.5
25	경기소비재	내구소비재 및 의류	4.8	-5.2	-9.2	-7.0
25	경기소비재	소비자 서비스	-5.3	0.7	0.7	-0.1
25	경기소비재	미디어	-2.5	-2.6	1.0	-7.6
30	필수소비재	음식료 및 담배	4.4	1.3	1.6	-4.3
30	필수소비재	생활용품	-0.4	-0.2	-0.9	-1.8
35	의료	제약 및 바이오	-3.8	2.1	1.6	1.4
40	금융	은행	-7.3	-12.1	1.3	0.3
40	금융	보험	0.4	-8.6	-6.7	-2.7
40	금융	증권	-10.3	1.4	-4.8	-22.1
40	금융	기타금융	-2.9	0.0	6.2	7.9
45	IT	반도체	3.5	-9.2	-3.9	-0.6
45	IT	하드웨어	-3.0	-1.7	1.7	14.1
45	IT	소프트웨어	-2.7	-1.1	-4.0	-2.0
45	IT	디스플레이	10.2	-3.5	-8.8	-22.9
50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0.6	-0.6	1.5	2.7
55	유틸리티	유틸리티	0.7	-5.0	-21.8	-7.3
		단순평균		-1.7	-2.8	-3.2

주: MK500 지수 기준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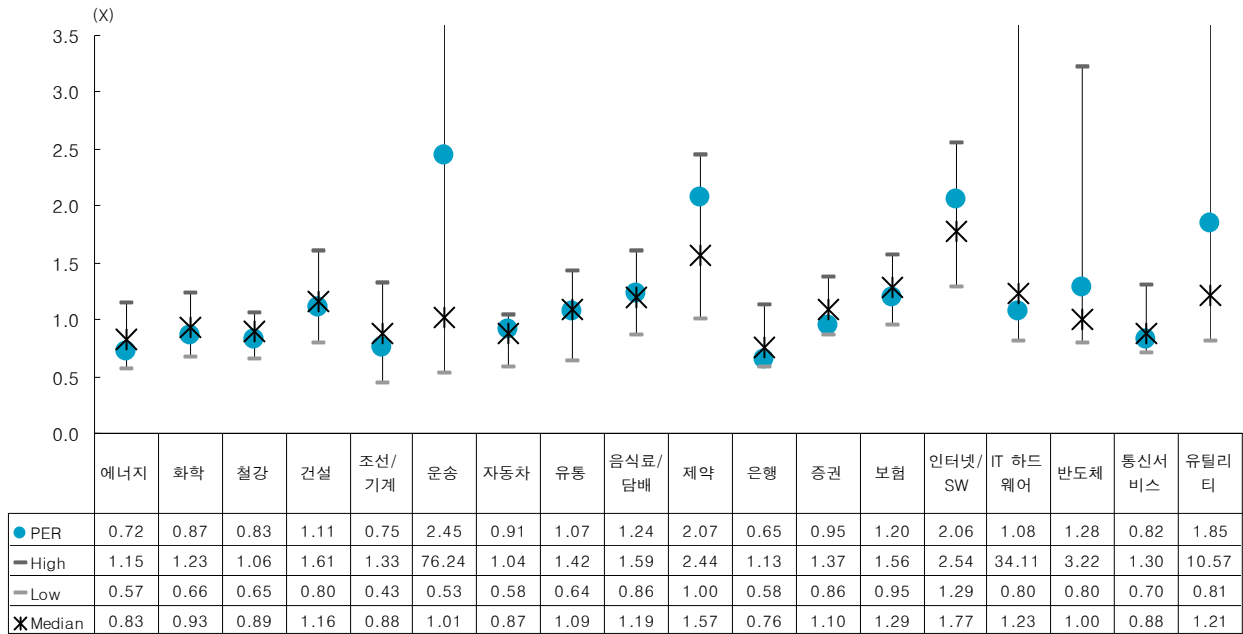
[그림 16] MKF500 업종별 2012년 EPS 추정치 증감률 (MoM)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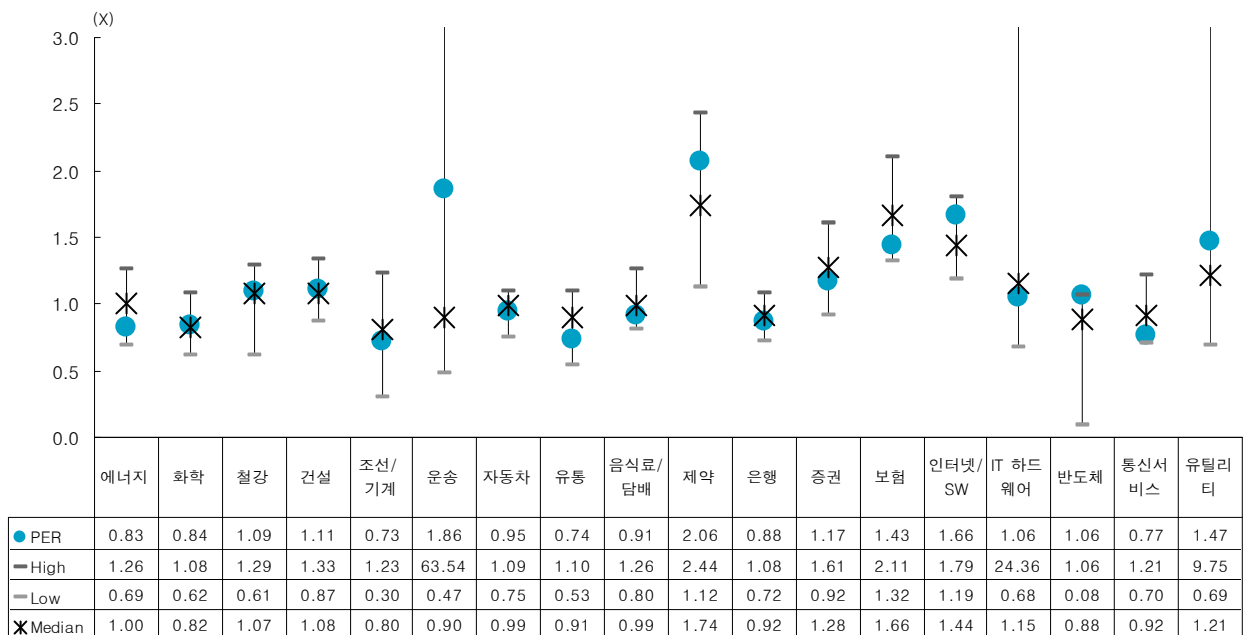
3) 업종별 상대 밸류에이션(Market & Global Market 대비)

[그림 17] 한국시장 대비 상대PER



주: 상대PER= 업종PER/시장PER, MSCI기준
 최고, 최저, 중간값은 지난 5년간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Global Market 대비 상대PER



주: 상대PER= 업종 상대PER/글로벌업종 상대PER, MSCI 기준
 자동차는 이머징마켓 대비
 최고, 최저, 중간값은 지난 5년간 기준
 자료: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